



한국틴스타

2010년 3월
제21호

www.teenstar.or.kr

제 나날의 삶의 하느님

아침이 밝아 옵니다.
 저희 둘, 제 아기와 저는 오늘도 하나입니다.
 모습이 만들어지고 자라고 변화하는 또 다른 날이
 저희 둘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꿈지락거리고 돌면서 발로 차는
 제 아기의 움직임을 느낄 때면
 저는 인간 삶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창조의 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
 제 몸의 변화를 눈여겨봅니다.
 저는 변화와 마주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
 저희 가운데 누구도 가져오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변화.
 그러나 저의 나날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저는 평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몸으로 들어와
 변화의 영원한 신비를 가져온 제 아기를 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카스 도터웨이치, 「태아를 축복하소서」 발췌

한 생명은 온 세상보다 소중하다

배미애 마리진 수녀

착한목자수녀회 소속 / 한국틴스타 대표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세상보다 소중합니다.’ 이것은 저희 수녀회의 모토입니다. 틴스타는 바로 이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현장을 저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올바른 성교육을 정착시키는 일이 필요하고, 꼭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으로 2004년 이 프로그램의 창시자이신 한나 클라우스 수녀님의 도움과 당시 서울대교구 중 서울 지역장으로 계셨던 안경렬 문시놀 님의 지지에 힘을 얻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틴스타 프로그램이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92년이었지만 2004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교회 안과 밖에서 그 활동영역을 꾸준히 넓혀 오고 있습니다.

..... 종락

2004년으로 되돌아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함께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할 한국 틴스타의 교사를 양성하는 일은 교육 현장을 개척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틴스타 활동을 하면서 잊지 못할 어떤 순간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틴스타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이름조차 낯설어 했던 그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4박 5일의 워크숍일정을 모두 마치고 저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지를 절실하게 원했고, 용기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 종락

2010년 현재, 한국틴스타는 모두 71차에 걸친 교사양성 워크숍이 있었고, 이제 생명 운동으로서의 성교육인 틴스타와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활동하고 있는 틴스타 교사는 전국적으로 112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교, 교회, 시설, 지역공동체에서 틴스타 프로그램으로 만난 사람들은 74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의 워크숍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자의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그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러한 경험은 결국 틴스타를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 되었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파트너 쉽 또한 생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저희에게 주는 의미는 양적인 성과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사랑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경험에 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을 한국현실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있었고, 앞으로도 해결하며 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틴스타는 무엇이 소중한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틴스타는 사랑과 생명을 전하며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생명은 온 세상보다 소중한니다.' 감사합니다.

※ 생명 존엄성 수호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제4회 생명의 신비상 시상식이 2010년 2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한국틴스타는 활동분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글은 한국틴스타 대표이신 배 마리진 수녀님의 강연 내용의 일부입니다.



'생명의 신비상'을 수상하고 있는 한국틴스타 대표 배마리진 수녀



강연을 하는 한국틴스타 대표 배마리진 수녀



시상식 축하를 위해 모인 틴스타 교사



수상자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틴스타 교사

생각해 봅시다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제14조 1항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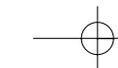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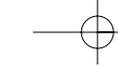
유전적 또는 특수 사정에 의하여 저능아나 기형아 출산이 확실한 경우는 이른바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로서, 자연법(自然法)과 신정법(神定法)은 물론이고,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이 전제하는 생명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출생한 사람의 생명보호(生命保護)가 생명의 질(質)을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태아(胎兒)의 생명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제14조 1항 2호)

광의의 유전학적 정당화 사유로서, 모자 보건법 시행령 제15조 3항에 따른 전염성 질환은 풍진·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풍진 따위의 질병에만 걸려도 아이를 낙태해도 좋다는 것이다. 질병으로 틀림없이 죽게 될 생명일지라도 그 생명은 죽는 순간까지 생존할 권리와 가치가 있다.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제14조 1항 3호)

윤리적 정당화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이미 임신된 이상 그 태아는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부녀의 인격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비교되지 않는다. 만일 부녀의 인격권 때문에 낙태를 인정할 경우, 생명권은 다른 낮은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도 괜찮다는 혼돈된 가치 질서를 만들어낸다.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제14조 1항 4호)**

생명권은 생래적(生來的)인 것으로서 법률에 앞서 있는 문제이며, 적법한 혼인 여부에 태아의 생명권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생명은 법률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사이라 하더라도, 이미 태어난 생명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그 생명에 대한 침해는 살인죄로 처벌된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태아)의 생명권도, 법률상 혼인할 수 있는 사이 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상관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제14조 1항 5호)**

의학적 정당화 사유이다. 동 조항의 문제점은 ‘모체의 건강’이란 말이 매우 넓은 개념이라는 점이다. 자의적 법 적용(適用)의 위험이 농후하다. 그 내용은 모체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신체에 대한 위험은 여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건강’이라는 개념 표지가 이와 같은 확대 해석의 위험을 안고 있고, 특히 ‘해할 염려’는 그것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 2010년 2월8일은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지 37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법의 14조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35만여 명(2005년 보건복지부 자료)이나 되는 아기들이 태어나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낙태로 희생된 아기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모자보건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미사가 이날 명동성당에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장봉훈 주교와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한국틴스타도 이런 운동에 동참하자는 뜻으로 모자보건법의 문제점을 심습니다.



●● 청년과 젊은 부부를 위한 성, 생명, 사랑학교 1기 모집

- 주 최 : 전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틴스타
- 기 간 : 2010년 3월 첫째 주 ~ 5월 둘째 주(총 10주)
- 시 간 : 주 1회 1시간(요일 및 시간은 그룹별 조정)
- 그 룹 : 오전반(여성 그룹), 저녁반(남성 그룹/남녀 혼성 그룹)
- 수 료 : 2010년 5월 16일(일) 오후 2시 ~5시 (특강 및 수료 미사)
- 회 비 : 2만 원
- 신청서 : 홈페이지 www.forlife.or.kr 참조
- 문 의 : 02-727-2351, 2350 / forlife@catholic.or.kr

* 2기 : 2010년 6월 첫째 주 ~ 8월 둘째 주

* 3기 : 2010년 9월 첫째 주 ~ 11월 둘째 주

●● 생명과의 화해를 위한 프로그램

- 주관 및 주최 : 한국틴스타
- 대 상 : - 낙태 경험이 있는 분
- 가임력이 있는 미혼 남녀
- 틴스타 프로그램 수료자 및 워크숍 수료자
- 자연가족계획법으로 살고자 하는 부부
- 일 시 : 2010년 5월 중
- 문 의 : 02-755-2629(www.teenstar.or.kr / kteenstar@hotmail.com)

2010년 상반기 진행 현장

분류	장 소	담당교사	시작일	지역
성당	서울대교구 지양동성당(총)	김혜선 수녀	2010년 1월 14일	서울
		주설령 선생	2010년 1월 21일	
	서울대교구 삼성동성당(총)	김혜정 선생	2010년 1월 27일	대구
	대구대교구 고산성당(중)	서영예 선생	2010년 1월 9일	
	대구 두산청년회(총)	백민주 선생	2009년 11월 26일	
시설	홀트아동복지회 아름뜰(미)	강민숙 선생	2010년 2월 5일	서울
	동방사회복지회 세움누리의 집(미)	강민숙 선생	2010년 2월 11일	인천

2009년 하반기 종료 현장

분류	장소	담당교사	시작일	종료일	지역
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고)	유정랑 선생	2009년 4월 18일	2009년 12월 5일	서울
	성암여자중학교(중)	김율리아 선생	2009년 4월 4일	2009년 10월 31일	
	동명여자고등학교(고)	김해영 선생	2009년 4월 16일	2008년 12월 3일	
	용화여자고등학교(고)	김창열 선생	2009년 4월 10일	2009년 12월 4일	
	송인중학교(중)	김용욱 선생	2009년 5월 15일	2009년 12월 19일	
	백석중학교(중)	강희숙(여), 김춘희(남) 선생	2009년 5월 16일	2009년 12월 19일	
	하비에르중학교(중)	정혜경, 김정성(남학생 3단원), 송석규(남학생 4,6단원), 이정현(남학생 5단원) 선생	2009년 11월 13일	2010년 1월 29일	경기도
	인천 동방중학교(중)	조정옥, 김경숙, 김희영, 안동석(남학생 분반), 김기환(남) 선생	2009년 9월 8일	2009년 11월 28일	
	인천 논현고등학교(고)	이정림(여), 정현옥(여), 이석근(남) 선생	2009년 8월 19일	2009년 12월 9일	
	용인 대지중학교(중)	주설령, 이회정, 황옥선, 양은미, 김상근(남학생 분반) 선생, 김종용(남학생 분반) 신부	2009년 9월 2일	2009년 12월 23일	
	안양 근명여자중학교(중)	김명숙, 고경미, 박소윤, 이영숙, 최영희 선생	2009년 9월 3일	2009년 12월 18일	
	구미 송정여자중학교(중)	김령희, 이승현 선생	2009년 9월 10일	2009년 12월 5일	
경북	왜관 순심중학교(중)	전수영, 백민주, 조화수(남학생 분반) 선생	2009년 9월 14일	2009년 11월 23일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총)	장숙희 수녀	2009년 9월 9일	2009년 12월 9일
서은주 수녀		2009년 9월 9일	2009년 11월 9일		
성당	서울대교구 장안동성당(총)	정은주 수녀, 김정성(남) 선생	2009년 11월 1일	2010년 1월 31일	서울
	서울대교구 자양동성당(총)	배 마리진 수녀	2009년 10월 18일	2009년 12월 20일	
	서울대교구 삼성동성당(총)	김혜정, 주설령, 강명주, 안병욱 선생	2009년 8월 11일	2009년 12월 20일	
	수원교구 태평동성당(고)	이회정 선생	2009년 9월 12일	2010년 2월 26일	경기도
	의정부교구 백석동성당(총)	이정현 선생	2009년 11월 23일	2010년 2월 22일	
시설	꿈사리공동체(중)	이영주 선생	2009년 9월 4일	2009년 12월 18일	서울
	신월청소년문화센터(중)	송명희 선생	2009년 10월 27일	2010년 1월 6일	
	군위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중)	나영훈 신부, 서은주(남학생 5단원) 수녀	2009년 9월 20일	2009년 12월 12일	경북
기타	하남 동화 읽어 주는 엄마모임(총)	김태인 선생	2009년 10월 19일	2009년 월 일	경기

※ 중 : 중학교 프로그램, 고 : 고등학교 프로그램, 총 :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 미 : 미혼모 프로그램
여 : 여학생 프로그램, 남 : 남학생 프로그램

알림 Notice



☆ 2010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종료 현황

제68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본부

- 주 최 : 한국틴스타 본부
- 기 간 : 2010년 1월 4일 ~ 7일
- 장 소 : 해화동 가톨릭교리신학원

제70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대구

- 주 최 : 틴스타 대구지부
- 기 간 : 2010년 1월 19일 ~ 22일
- 장 소 : 대구대교구청 제5회합실

제69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진주

- 주 최 : 진주 개양중학교
- 기 간 : 2010년 1월 11일 ~ 14일
- 장 소 : 진주 개양중학교

제71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제주

- 주 최 : 틴스타 제주지부
- 기 간 : 2010년 1월 25일 ~ 28일
- 장 소 : 제주건강가정지원센터

☆ 2010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안내

제72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부산

- 주 최 : 부산가톨릭신학대학교
- 기 간 : 2010년 3월 17일 ~ 20일
- 장 소 : 부산가톨릭신학대학교

제73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본부

- 주 최 : 한국틴스타 본부
- 기 간 : 2010년 6월 26~27일, 7월 3~4일(주말)
- 장 소 : 미정

제74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수원

- 주 최 : 수원교구
- 기 간 : 2010년 7월 19일 ~ 22일
- 장 소 : 미정

☆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CMS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거나 본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후원통장 : 우리은행 (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5-100-998647
- 국민은행 (예금주: 한국틴스타) : 875401-01-517401
- 신한은행 (예금주: 한국틴스타) : 306-01-261337
- 외환은행 (예금주: 한국틴스타) : 611-016668-535

발행일 : 2010년 3월 1일
 발행처 : 한국틴스타
 주 소 : 서울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519호
 전 화 : 02)755-2629

발 행 인 : 배마리진 수녀
 홈페이지 : www.teenstar.or.kr
 E-mail : kteenstar@hotmail.com
 팩 스 : 02)727-2243